

竹島領有權確立運動 隠岐の島町集会和 韓国側の反応



일본 오기노시마촌 독도 영유권 관련 집회에 대한

규탄성명서

1. 경상북도는 일본 오기노시마촌에서 개최된 소위 독도 영유권 집회에 대하여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지역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9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竹島問題研究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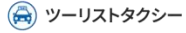
2024年12月26日(下條)

1. 14年ぶりに開催された

竹島領有権確立運動隠岐の島町集会(ライブ配信)

- (1) 11月9日、佐々木先生の基調講演を予定
- (2) 出席者、政府関係(内閣参事官)、地元出身国会議員
島根県知事等、約600名
- (3) 式典の内容→主催者及び来賓の挨拶
- (4) 講演会→総括
→アトラクション「メチのいた島」読み聞かせ
(杉原由美子氏)
- (5) 総括では隠岐島と鬱陵島に航路を開き、地域交流を提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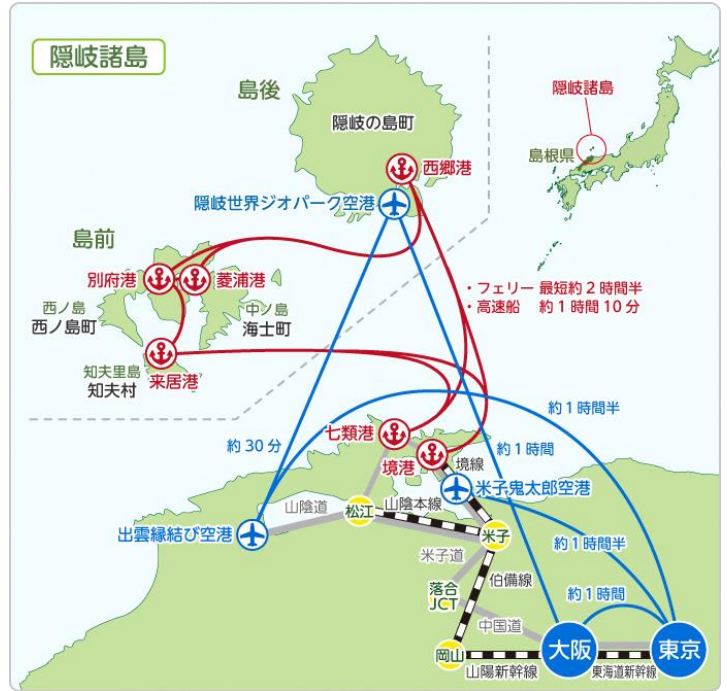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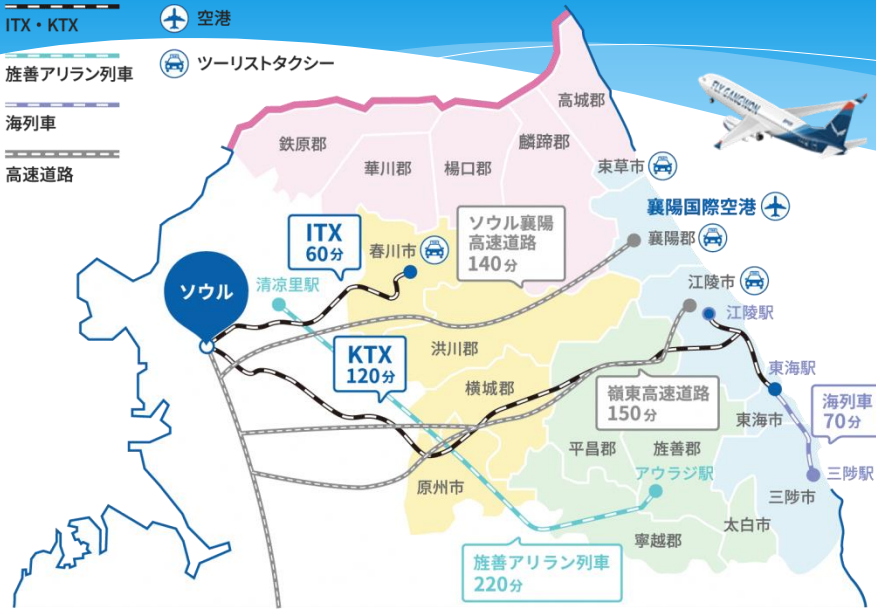
ITX・KTX



旌善アリアン列車

海列車

高速道路



2. 韓国側の反応とその背景

- (1) 李喆雨慶尚北道知事、「糾弾声明書」で、「未来志向的で友好的な韓日の地域交流と協力時代に向かうことを求める」
(2024年11月9日)、蔚陵郡守も同調。
- (2) 韓国側の状況→9月、三陟市に「三陟異斯夫独島記念館」開館。
一か月の来館者数1万4千名。(大人600円、子供300円)
内閣官房参事官談、領土主権展示館、5年間の来館者数館6万2千名。
- (3) 韓国の江原道と慶尚北道の観光政策
- (4) 徐垞徳氏「十四年ぶりの集会を
「独島侵奪野心の前哨基地にするためじっくり準備」





3. 「竹島資料室」と「久見竹島歴史館」

(1) 「竹島資料室」、2007年、開設

(2) 「久見竹島歴史館」、2016年、開館

(3) 2023年2月、令和5年「竹島の日」古地図展

(4) 2023年4月～11月、

「隠岐の島町竹島資料収集施設」古地図展

